



## 시장 급락 쇼크

쏟아짐이 잠시 되돌려지는 과정

투자전략팀 퀀트 안한국 hg.ahn@hanwha.com 3772-7646

6월 한 달 동안 증시에 부담 요인이 작용하지만, 현 수준에서는 분할 매수 대응이 유리하다.

지난 3월부터 미국 IT 섹터 시가총액 비중은 유례없는 속도로 가파르게 올라왔다. S&P500 전체 시가총액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은 5월 말 38.6%를 기록했다. IT 버블 당시 35%, 작년 10월 말 36.1%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극도의 쏟아짐이 진행됐다.

현재 반도체 사이클은 2016년과 비교되는데, 당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추세 상승은 2년간 걸렸고,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작년 5월부터 1년간 추세 상승을 이어왔다. 2016년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사실상 5월 중순부터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반도체 사이클을 지나고 있는 셈이다.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반영되는 시기에 지난 3일 브로드컴의 AI 매출 가이드스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며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이벤트는 6월 24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까지 3주간 공백이다. 평소보다 조정이 컸던 이유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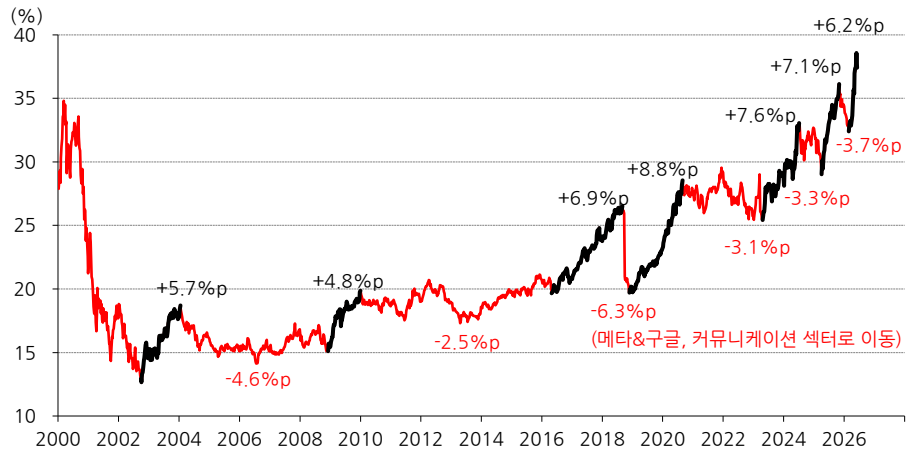
한편, 지난 금요일 미국 고용 지표 서프라이즈로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도 한 때 1560원을 넘어섰다. 미국 금리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는 이번주와 다음주에도 집중돼 있다(6/10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6/11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6/16~17 FOMC 금리 결정).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반도체 매도가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IT가 극도로 쏟아짐 한국 반도체 역시 비중이 높아지면서 비중 조절(리스크 관리)을 위한 리밸런싱 매도로 판단한다.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시장의 구도를 리스크 관리를 위해 파는 자 vs. 싼 주식을 사는 자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싼 주식을 사는 개인의 힘이 더 강하다고 판단한다.

반도체 공백과 매크로 지표 부담이 상존하지만 실적 하향 같은 펀더멘털 노이즈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작년 관세 충격과 올해 전쟁 충격 모두 직전 고점 대비 약 20% 하락하며 마무리됐는데, 코스피는 직전 고점(8801.49p) 대비 이미 15.0% 하락했다. 하락률 20%를 적용하면 7041p다. 현 수준에서 분할 매수 대응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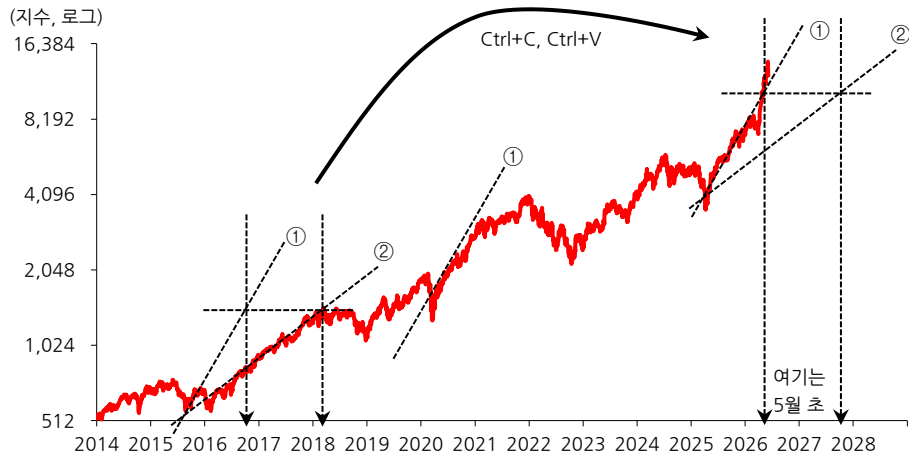
향후 반등 과정에서는 높은 금리와 환율 환경에도 반도체처럼 구조적 성장, 펀더멘털을 채워 줄 수 있는 업종에 주목한다. IT 섹터 다음으로 큰 산업계와 금융에 속하는 은행과 조선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1] 미국 S&P500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IT 섹터 시가총액 비중



자료: Refinitiv, 한화투자증권

[그림2]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이



자료: Refinitiv, 한화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